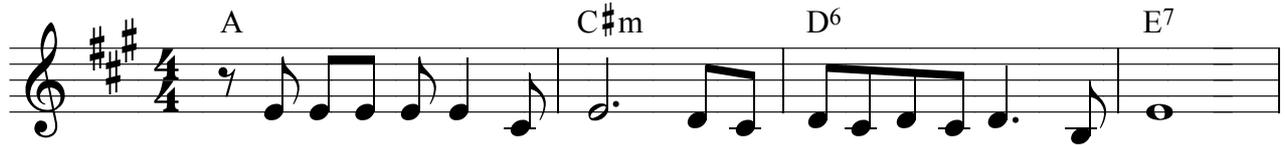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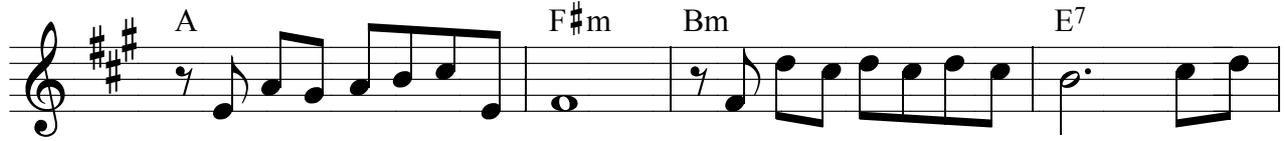


김민식



1. 주님을 그리다가 잠든 어느 아름다운 밤  
2. 사랑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해



포근한 구름 사이로 한 없이 날아다녔지 너무  
진리의 잔을 마시고 새롭게 태어나세요 얼마



나 - 자유로워 새털처럼 가벼운 영혼  
나 - 고마운 가 고동치는 나의 생명이



세상은 어둠에 잠겨도 그곳은 찬란하였네  
다시는 눈물이 없어요 주님을 만난 뒤부터



주와 함께 - 모두 날아봐요 - 죄의 멍에 벗어 - 뱀리고 영원



한 - 기쁨 속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요